

대출금리에서 금지된 것은 비용입니까 항목입니까

은행법은 반영 금지 항목을, 시행령은 보증부대출 출연금의 상한을 정합니다

금융위원회 발표, 개정 은행법과 시행령을 대조해 전부 금지·일부 허용·규정 밖에 남은 영역을 구분했습니다.

발행	2026.09.07	연번	2026_91
읽는 시간	6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9.06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개정을 대출금리 총액 규제가 아니라 가산금리에 넣을 수 있는 비용 항목의 규제로 본다. 같은 금액이 다른 가산항목이나 우대금리 축소로 되돌아왔는지는 현재 금리 산정내역서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시행 뒤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와 항목별 변화를 공개해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2026년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갱신 대출에는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보증부대출의 보증기금 출연금은 절반 미만만 반영할 수 있지만, 금리 총액과 우대금리 조정까지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개정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그날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대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신규·갱신 계약부터
전부 반영 금지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은행법
보증부대출	보증기금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50% 미만만 허용
비보증부대출	보증기금 출연금 반영 100% 금지	시행령 100분의 0
교육세	1조원 초과분 세율 인상분 반영 금지	0.5%→1.0% 인상분
자체점검	연 2회 이상	결과 기록·관리

은행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2023년 1월부터 이미 은행권 모범규준으로 반영하지 않던 항목이었고, 이번에 법률상 금지 항목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증기금 출연금은 대출에 보증이 붙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절반 미만을 반영할 수 있고, 보증과 무관한 대출은 전혀 반영할 수 없습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의 세율 인상분만 금지됩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정합니다. 개정법은 이 가운데 특정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넣는 일을 막았지만 최종 금리의 상한이나 우대금리 폭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은 금지할 비용 묶음을 정하고 시행령은 보증기금 출연금의 반영 한도를 보증부대출 100분의 50, 그 밖의 대출 100분의 0으로 정했습니다. 은행별 세부 산식은 내부 기준과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아래에 남습니다.

은행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개별 차주에게 교부하거나 업권별로 공표하도록 한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은행에서 새로 대출받거나 계약을 갱신한 차주입니다. 보증부대출 차주는 출연금의 일부가 계속 금리에 반영될 수 있고, 비보증부대출 차주는 해당 출연금 반영이 전부 금지됩니다.

공식 발표에는 차주 1인당 인하액이나 시행 뒤 평균 금리 변동폭이 없습니다. 출연금 총액과 은행별 실제 반영률도 공개되지 않아 개인 부담 경감액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보증부대출 출연금	50% 미만 반영 가능	시행령 상한
비보증부대출 출연금	0%	전부 금지
교육세 1조원 초과분	0.5%p 인상	1.0%-0.5%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금리 총액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반영이 금지된 비용만 정하므로 다른 가산항목이나 우대금리의 변화를 함께 보지 않으면 실제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

02 · 보증부대출에는 일부 부담이 남습니다

시행령은 보증기금 출연금의 절반 미만을 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03 · 자체점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는 있지만 은행별 결과와 시정 내역의 공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 차주별 경감액을 계산할 자료가 없습니다

출연금 총액, 상품별 반영률과 시행 전후 금리 구성 변화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대출 약정서와 금리 산정내역서에서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를 각각 확인합니다. - 대출에 보증기금 보증이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7월 1일 이후 체결·갱신했다면 금지 비용이 산식에서 어떻게 제외됐는지 은행에 서면으로 묻습니다.
대상회사	- 자체점검 기록에 금지 항목뿐 아니라 시행 전후 다른 가산항목과 우대금리 변동을 함께 남깁니다. - 차주에게 교부하는 산정내역서에 법적비용 제외 여부를 명시합니다.
당국	- 은행별 준수 점검 결과와 시정 건수를 정기적으로 공표합니다. - 시행 전후 가산금리·우대금리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공시 항목을 마련합니다.

갈림길

자체점검 결과가 차주가 볼 수 있는 공시로 이어지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은행별 점검 결과와 실제 금리 구성 변화의 공개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 결과를 정기 공표 차주는 법적비용 제외가 실제 금리 부담 감소로 이어졌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B 은행 내부 기록에 머물 금지 항목 준수 여부는 감독당국만 확인하고 차주는 최종 금리만 보게 됩니다.
--	--

어디를 보면 아는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준수 점검 결과와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공시 개편 여부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2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리서치 공시된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평균이고 내가 받는 금리가 아니다 ↗

제도와 규칙 금리인하요구권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4건

01	1차 · 반영 금지 비용, 보증부·비보증 대출 구분, 7월 1일 적용과 연 2회 자체점검 금융위원회 은행과, 「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2026.6.29 (확인 2026.9.7) · 확인 2026-09-07 원문 열기 ↗
----	---

02	1차 · 보증부대출 100분의 50, 그 밖의 대출 100분의 0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5·대통령령 제36417호 (확인 2026.9.7) · 확인 2026-09-07 원문 열기 ↗
03	1차 · 개정 은행법의 공포·시행과 법적비용 반영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법 제30조의3·법률 제21296호 (확인 2026.9.7) · 확인 2026-09-07 원문 열기 ↗
04	파생 · 교육세 1조원 초과분 인상폭 0.5%p 금융위원회 발표의 종전 0.5%와 개정 1.0%를 차감. 1.0%-0.5%=0.5%p · 확인 2026-09-07

추적 예정	은행별 자체점검 결과, 감독당국의 시정 내역과 시행 전후 금리 구성 변화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원고의 중복 계산 문단을 정리하고 별도 '04 보' 항목을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에 통합했습니다. 공개 사이트 순서에 따라 제91호를 부여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감독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개별 대출의 금리나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